

# 발레의상에 대한 연구 II

이 영 숙

(서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로맨틱발레는 Marie Taglioni의 “La Sylphide”로 시작되었으며 19세기 초반부까지의 남자 무용수 중심의 무대가 Sylphide와 함께 발레리나 중심의 무대로 변모되었다.

무대는 그림자, 어두움, 달빛, 안개 등으로 꾸며졌는데 이런 신비스런 효과는 가스조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발레에는 유령, 요정, 사탄 등의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하였다.

발레의상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Taglioni가 Sylphide에서 착용한 흰색의 꼭끼는 상제와 넓고 깊게 파여진 décolletage, 종아리 길이로 짧아진 얇은 모슬린의 tarlatan 스커트는 이 흰색이 주는 효과로 ballet blanc이라 불려지면서 현재까지 발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다.

1832년부터 1847년까지 공연된 앞에서 열거한 발레공연시의 발레의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네크라인은 La Gipsy에서의 Elfler의 발레의상만 제외하고는 거의 가슴과 등이 드러난 길에 파여진 대담한 décolletage로 당대 귀부인들의 무도회 의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소매의 형태는 Gipsy를 제외하고는 윗팔만 살짝 덮는 형태이거나 반소매였으며 얇은 두 개의 형태가 다른 소매(puff 소매와 flare진 소매)가 함께 달렸거나 재질과 색상이 다른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수를 놓거나 선 장식을 하였다.

허리선은 대부분 폭맞게 강조되거나 뾰족한 형태로 허리는 가늘게 보이도록 하였는데 그 둘레를 따라 장식선, 새쉬, 보석 등을 장식하였다.

스커트의 형태는 여러 겹으로 bell-shaped가 되도록 하였고 길이는 종아리까지 닿았으며 활동하기에 자유로웠다. 이런 짧은 스커트는 당대의 도덕기준에 의해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Taglioni는 Sylphide, Fleur-de-Champ, Gitana의 짚시, 그림자에서의 부인의 영혼, Pas de Quatre 등에서 거의 상하가 얇은 같은 옷감으로 된 의상을 착용하였고 다른 발레리나들은 상하의가 색상이나 재질이 다른 것을 착용하였다.

신발은 toe-dancing의 일반화로 인하여 굽이 없고 끈으로 발등에서 교차되어 여미도록 된 형접으로 만든 발레슈즈를 신었으며 Gipsy에서는 반부츠를 보여주었다.

헤어스타일은 대부분 단정하게 빗어 넘기거나 화관, 꽃 리본, 깃털, 모자 등으로 장식하였고 La Gipsy, La Esmeralda, La Fille de Marbe에서는 두 갈래로 길게 땡아 내린 머리형태도 보여주었다.

발레리나들은 숲이나 악기(탬버린, 캐스터네츠) 등을 들고 춤을 추기도 하였고 목걸이, 팔찌 등을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Taglioni는 여러 줄로 장식된 진주목걸이와 팔찌 등을 착

용하였다.

이와 같이 발레리나들이 착용했던 다양한 스타일과 장신구들은 상류층 부인 등의 의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유사한 형태의 décolletage나 뺏쪽한 허리선, 두장으로 된 소매, 리본 장식, 헤어스타일, 납작한 슈즈 등이 유행하였다.